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CNBC: 치솟는 연방 부채와 적자로 경제와 시장 위협 우려돼
- Reuters: 연준 부의장, “실망스러운 인플레이 발표... 긴축정책 더 필요
- CNN Business: 부유층 소비자, 신중하게 소비 시작한다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 관리들, ‘모기지 회사들 경기 침체 부추길 수 있다’

#### [미국 생활]

- CNBC: 미국인 직장인 점심 아끼고 저녁과 주말에 소비

#### [원자재]

- WSJ: 구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보인다

#### [원유]

- CNBC: 이란 대통령의 사망에도 유가 변동 없다

#### [글로벌 경제]

- WSJ: 재닛 옐런,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입장 표명

#### [전기차]

- WSJ: 미국 관세로 ‘저렴한 전기차 생산’ 점점 어려워진다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Z세대 7명 중 1명이 ‘신용카드 한도 초과’
- CNN Business: Target, 최대 5천개 품목 가격 인하한다
- Bloomberg: 레드 랍스터, 무제한 새우 프로모션 후 ‘파산’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CNBC: Soaring debt and deficits causing worry about threats to the economy and markets**

##### **치솟는 연방 부채와 적자로 경제와 시장 위협 우려돼**

- 팬데믹 이후로 연방 부채가 거의 50% 상승했다. 현재 총 34조 5천억 달러로 미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자그마치 120%다.
- 연방 예산실에 따르면 GDP와 비교한 연방 부채는 역사상 어떤 시점의 규모보다 크다. 현재는 GDP의 99% 수준인데 10년 후에는 1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적자에 직면해 있는데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조만간 팔을 걷어붙이고 처리해야 할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CNBC 기사

### Reuters: Fed's Barr: Inflation data 'disappointing,' tight policy needs more time

#### 연준 부의장, “실망스러운 인플레이 발표... 긴축정책 더 필요

-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인 Michael Barr는 오늘 월요일 “올해 상반기 인플레이 데이터가 실망스럽게 나타났다”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 지표들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그는 연준의 인플레이 2%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분명한 인플레이 둔화가 나타날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이 계속 필요하고 말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3월에 2.7%로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월분은 다음 주 발표 예정.

## Reuters 기사

### CNN Business: Wealthy Americans are starting to spend more carefully

#### 부유층 소비자, 신중하게 소비 시작한다

- 지난 수년간 미 소비 경제를 견인했던 부유층의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 한 예로 지난주 영국의 고급 소매점 Burberry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마감하는 예산 연도에 수익이 40% 급감했다. 미국 부분의 판매는 한 해 동안 12% 줄었다는 것이다.
- 루이뷔통은 지난달 최근 실적 보고에서 미국 내 고급 주류 수요가 크게 감소해 이 회사의 주류 부문의 재고 규모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 물론 로얄 카리비언 크루즈는 1분기 실적이 좋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민감해져 기업들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힘들다고 업계 실태를 설문 조사한 연준의 베이지북은 밝혔다.

## CNN Business 기사

## [미국 금융]

### CNN Business: Mortgage companies could intensify the next recession, US officials warn

#### 미 관리들, ‘모기지 회사들 경기 침체 부추길 수 있다’

- 미 관리들은 모기지 회사들의 연쇄적인 부실로 인해 향후 침체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가격 폭락, 동결된 금융 시장, 치솟는 연체율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 미 금융안전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금융 산업에 영향력이 커지는 비은행 모기지 회사들에 경종을 울렸다.
- 전통적인 은행과는 달리 이들 비은행 모기지 회사들은 모기지 시장의 변동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위기 시 자금 고갈과 안정된 예금이 부족한 상황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과는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받는 게 약하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미국 생활]

#### **CNBC: The lunch rush is dead as Americans live for the weekend** 미국인 직장인 점심 아끼고 저녁과 주말에 소비

- 팬데믹 이후의 현상으로 미국인들이 주중 점심을 아끼고 있다. 많은 바와 식당의 점심시간 비즈니스가 하이브리드 생활 패턴 때문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관련 스쿼어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주중 직장인들의 식당 점심 사용 빈도수가 2019년과 비교해 작년에 3.3% 감소했고, 주말에는 4.2% 상승했다. 주중 오후 시간이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0.3% 늘었다. 주요 대도시에서 식당 사용 빈도수가 감소하고 주말과 저녁에 늘고 있다고 토론토대학 연구 결과는 밝혔다.

CNBC 기사

### [원자재]

#### **WSJ: Copper Prices Hit Another Record. Here's Why.** 구리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보인다

- 가장 중요한 산업 금속이라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전기 전도체 역할을 하는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 관련 국가 산업 정책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수요 매력이 커지고 있다.
- 구리 선물 시작 가격은 아래 도표를 참조.

WSJ 기사

**[원유]****CNBC: Oil little changed after Iran's president dies in helicopter crash\**  
**이란 대통령의 사망에도 유가 변동 없다**

-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이란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사망했지만 월요일 원유 선물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 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인 이란의 정책은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 지난주 미국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트레이더들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폭제를 발견하면서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 6월 선물은 79.78불, 브렌트유는 83.77불로 거래되고 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WSJ: A Global Tax on Billionaires? Janet Yellen Says 'No'**  
**재닛 옐런,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입장 표명**

-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글로벌 부유세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부유세는 브라질, 프랑스 및 기타 국가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 브라질은 올해 G20 의장국으로, 저세율 지역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 초부유층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목표는 2021년에 약 140개국이 가입한 글로벌 최저 세금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장애물에 부딪혔다.
- 옐런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누진세를 믿는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재분배하여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공통 협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SJ 기사

**[전기차]****WSJ: U.S. Tariffs Close Off the Easiest Route to Affordable EVs**  
**미국 관세로 '저렴한 전기차 생산' 점점 어려워진다**

- 미국에서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중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업계에서 더 주목하는 점은 중국산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관세가 현재 7.5%에서 25%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소식은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인 표준형 모델3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중국산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관세 인상으로 인해 표준형 모델 3 한 대당 약 1천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1 in 7 Gen Z credit card users are 'maxed out'** Z세대 7명 중 1명이 '신용카드 한도 초과'

-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신용카드 대출자의 7명 중 1명(15.3%)이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은 Z세대를 1995년에서 2011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했다.
- 베이비붐 세대 대출자는 4.8%, X세대는 9.6%가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다. 이는 심각한 현금 흐름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
-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은 신용카드 연체 문제를 겪고 있다. 뉴욕 연준은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채의 연체율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90일 이상 연체된 심각한 신용카드 연체율은 현재 10.7%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재정적 스트레스를 계속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CNN 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Target is cutting prices on up to 5,000 items to lure back inflation-wary shoppers** Target, 최대 5천개 품목 가격 인하한다

- Target이 버터부터 세탁 세제에 이르기까지 1천5백개 이상의 인기 상품 가격을 인하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쇼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 가격 인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Target은 "여름 동안 5천개 품목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가격 인하는 우유, 과일, 기저귀,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와 같은 광범위한 일상용품에 적용되며, 소비자들이 총체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 이케아, 알디 등 다른 주요 소매업체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 소비자를 다시 매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가격을 인하하는 추세다.

### CNN Business 기사

## Bloomberg: Red Lobster Chain Goes Bankrupt After Unlimited Shrimp Deal

### 레드 랍스터, 무제한 새우 프로모션 후 '파산'

- 해산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 랍스터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는 부담스러운 임대료, 높은 인건비, 그리고 새우 무제한 프로모션의 영향 때문이다.
-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일요일에 챗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을 통해 회사는 채권자 상환 계획을 세우는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레드 랍스터는 파산을 통해 체인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Fortress 투자그룹이 이끄는 대출 기관에 회사 경영권을 넘길 계획이다.

### Bloomberg 기사

##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세계 '불장'...14곳 증시 최고치 행진"

### "美 다우지수 첫 4만선 돌파...유럽·아시아 증시도 신고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20개 주요 증시 중 14곳이 최근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그에 근접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ACWI 지수)는 17일 역대 최고치로 장을 종료했으며,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